

선택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해야...

윤 매 옥(한호협 출판이사, 예수병원 수간호사)

1990년대 초 한호협 창립 이후로 내가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곤 한다. 주변에서는 거의 호스피스활동이 없었으므로 1년에 서너 차례 서울에서 협회일로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나에게 호스피스간호에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었다.

나는 매일아침 직원예배를 마치고 모든 말기환자를 방문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각각 다양했으며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요구를 파악하고 돌보는 일과 자원봉사자역할을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열과 성을 다하여 호스피스간호를 해오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고 있었다. 각 환자를 돌본 후에 병실을 나와서는 매일같이 반복하여 구토 증세를 일으켰고 상복부의 타는 듯한 통증과 부글부글 끓는 뱃속, 목은 막힌 듯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을 경험하면서 갈수록 소진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말기환자들이 겪는 듯한 신체증상이 내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위내시경을 한 결과 심한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년 동안 무려 세 차례의 내시경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앞으로 호스피스간호를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평소 기도생활을 해오긴 했지만 이젠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겠다는 단호한 생각으로 고단한 몸이었지만 새벽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천둥번개가 사방에 내려치는 동시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교회에 가려고 아파트를 나서려하는데 무서운 생각에 몸이 굳은 채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이내 그치길 기다렸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내려치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마음을 담대히 하고 교회를 향하여 발길을 재촉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잠시 소파에 기댄 채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서 흰 머리에 긴 턱수염을 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 내 앞에 앉은 후 네모진 상위에 희고 넓은 화선지를 펴놓고 굵고 진한 붓글씨로 "No Problem"이라고 써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으며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난 날아갈듯 한 기분이었고 몸도 가벼워짐을 느꼈다. 악화되었던 위궤양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전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며 매일 주어지는 일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도 주님께서 여러 차례 꿈을 통하여 수많은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여정과 천국행 열차를 타고 출발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 잊혀지지 않고 눈에 선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감당할만한 분량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며 그런 과정을 지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그 동안 2000여명의 말기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간호할 수 있었음은 오직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었음을 믿고 있다.

사랑하는 한호협 회원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선택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며 동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영적 기갈 속에서 구원의 말씀듣기를 갈급해 하며 육체적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